

인도네시아 전통주택 생활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대한 연구 - 족자카르타 코타게데 자바 전통 주택을 중심으로 -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Life Style of Javanese Houses - Focused on Java Traditional Houses in Kotagede, Yogyakarta-Indonesia -

김도연* 주서령**
Kim, Do-Yeon Ju, Seo-Rye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the traditional life styles in Javanese houses have continued or transformed to adapt to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Javanese houses located in Kotagede, Indonesia. Focused on the six traditional Javanese houses in Kotagede, the measurements of the houses,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observational of life patterns were applied for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traditional Javanese housing have inherited the property from their parents or relatives. They have maintained the traditional structure and space order following the traditional axis of the north and the south. Second, having a pendapo is not as important anymore since maintain a pendapo costs a lot and public events are not held often in a private house anymore. Therefore the use and its symbolic meaning of a pendapo have weakened. Third, the dalem is not used as frequently as the gandok even though the dalem was a higher order in a traditional hierarchy. The uses of middle senthong have been changed from sacred god's space to private bedrooms or prayer room for Muslims. Fourth, the gandok is used as the most active living space in nowadays to adopt to the modern lifestyle. As a conclusion, the traditional Javanese housings in Kotagede have maintained its traditional values in the aspect of space and structure. Whereas the pendapo and the dalem, which once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rooms, have lost its symbolic meanings, the importance of gandok, which is the center of living space and transformed into divided private spaces such as bedrooms, has increased according to modernization.

키워드 : 자바주택, 자바전통주택, 코타게데, 전통 생활양식
Keywords : Java house, Javanese Traditional house, Kotaede, Traditional Life Styl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거는 문화의 특별한 결과물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별한 생활양식이 나타난다(Law & Chambers, 1989). 주거생활양식은 주거공간에서 개인을 포함한 가족원 모두에게 일어나는 총체적인 생활방식으로 인간의 사회·문화·심리적요소가 반영된 정신적인 측면인 주의식과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을 반영한 행위적인 측면인 주생활로 구분 할 수 있다(Holahan, 1982; Lee & Hong, 1996).

과거 농업위주의 경제생활에서 근대화에 따른 공업위주의 경제체제로의 바뀌면서 주거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가치체계 등 전통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전통마을의 정주환경과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발생시켰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통주거공간에는 전통문화의 지속과 근대에 따른 변화가 공존하고 있다. 즉 근대화, 산업화에 따른 건축 구조와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 질서에서는 전통적인 지속성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전통주거의 관념체계에 대한 기초연구 그리고 전통주거의 공간/ 조형/ 의장 특성 등 물리적인 특성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생활양식에 중점을 두고, 전통 생활 요소의 지속성과 변용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활양식의 지속성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대변한다 할 수 있으며, 변용적 특성은 현대 주거생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주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경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seorju@gmail.com)
이 연구는 2015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NRF-2013R1A1A3007821).

Table 1. Profile of Selected Houses

Case	A: Mr. Erwito Wibowo	B: Mrs. Rini Kusuma	C: Mrs. Rina	D: Mr. Joko Nugroho	E: Mrs. Lely	F: Mr. Achmad Charis Zubair
Front photo of Dlaem						
Houseowner	Mr. Erwito Wibowo	Mrs. Sunartiniyah	Mr. Yunus Aris	Mr. Joko Nugroho	Mrs. Asnafiah	Mr. Achmad Charis Zubair
Address	Dolahan KG III No.580 RT31/RW07	Dolahan No.607 RT30/RW07	Selokraman KG III 1043 RT48/RW11	Alun-alun RT37/RW09	Selokraman KG III/C 1034	Boharen KGIII/653
Built Year	About 1825	19th Century Purchase	19th Century Purchase	About 1830	19th Century Purchase	About 1854
Occupation of Owner	Entrepreneur	House wife(Uncle: Silversmith maker)	Pensioner	Tourism	House wife (Batik sales)	Professor UGM(retired)
History of ownership	Purchase (father) Inheritance	Inheritance	Purchase (from Relative)	Inheritance	Inheritance	Inheritance
Family tree						

족자카르타 코타게데(Kotagede)는 16세기 이슬람 마타 람 왕국의 수도로 사원과 시장, 그리고 전통 양식으로 지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변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바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6년 지진으로 인해 많은 전통 주택들은 붕괴되고 손상되어 UNESCO 자카르타(2007)에서는 코타게데 지구 주택 소유자를 위해 문화유산 보존 및 유지관리 지침에 제시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코타게데의 전통 주택은 근대화, 도시화와 역동적인 사회정치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현대의 새로운 주거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변화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코타게데 자바 전통 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전통 주택의 공간 사용방식(주생활)과 공간의 의미(주의식)가 현대까지 어떻게 지속되고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자바 전통 주택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현장연구를 통하여 한 지역의 주거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¹⁾ 및 대상주거를 직접 방문하여 실측조사, 관찰조사²⁾, 면담조사³⁾ 등의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1) 코타게데 지역의 현장 조사연구로 3개의 연구가 있다. Wondoamiseno(1986)는 코타게데 Alun-alun 골목의 9개 주택에 한정하여 조사하였고, Cahyono(2002)는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11 주택을 조사하였으나 주거조성과 순응에 초점에 맞춰 주거패턴에 어떠한 영향에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Gregorius(2014)는 4개 지역 40개 주택을 조사하였으나 지진 전후 공간 변화를 유형학적으로 분류하여 자바문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주택들이 판매공간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주거변형이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공간의 지속과 변용을 조사하였다.

현장연구는 족자카르타(Yogyakarta) 코타게데 지역에 위치한 자바 전통 주택으로, 예비조사⁴⁾를 거쳐 현지 전문가⁵⁾의 도움을 받아 푸르바얀(Purbayan)지구의 주택 6사례(Table 1)를 선정하였다. 현지조사는 2014년 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3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명의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2인은 면담조사(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인은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스케치), 2인은 실측조사와 스케치를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자바 전통 주택의 공간의 사용과 의미 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통 주택의 주요 공간별로 실내 가구 및 기물들을 실측, 스케치하여 현대 공간 사용방식을 조사하였으며, 거주자 인터뷰를 통하여 전통적인 공간 사용방식과 중간에 일어난 주택개조 사항⁶⁾을 조사

- 2)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3)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족 배경과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얻는 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였다.
- 4) 1985년 코타게데 문서에 의하면 171개의 전통주택이 4개의 구역(Jagalan 36가구, Purbayan 67가구, Singosaren 62가구, Prenggan 6가구에 분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예비조사를 2014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Jagalam지역과 Purbayan 지역을 중심으로 12사례의 주택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자바전통 주택의 구성요소 및 의장요소가 잘 유지되고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제외하였고, 주택의 일부를 샅이나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도 제외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의 차별을 두기 위함으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총 17개의 주택을 조사하였으며, 거주인과 심층 인터뷰가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최종 6사례를 선정하였다.
- 5) 자바 전통주택 전문가 Mr. Santosa, R. B(Lecturer, Dept. of Architecture, Indonesian Islamic University)의 협조 및 자문을 받았으며, 실측 조사 시 현지 학생을 섭외해 주었다.
- 6) 주택의 개조사항은 사례분석에서 언급하였고, 도면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도면에는 신축, 개축, 증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신축은 기존 건물과 구조·용도·공간구성이 변화한 경우로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과 비일상 생활이 일어나는 공간과 공간에 대한 중요도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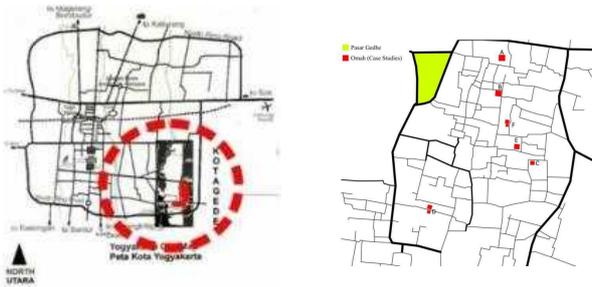


Figure 1. The location of research area and cases

2. 코타게데(Kotagede) 자바 전통 주택의 특성

2.1 자바 전통 주택

일반적인 자바건축은 고전양식과 전통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 자바건축은 인도건축에 영향을 받아 7세기부터 발전하여 9세기에 절정기를 달한다. 이러한 고전 자바건축은 힌두교-불교시대인 14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자바 전통 건축은 기후와 재료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지역의 토속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바 섬은 열대 습윤기후로 열대기후와 폭우에 견딜 수 있는 파티션 구조와 지붕의 형태가 특징이다. 현재의 자바 건축양식은 14C 마자파히트(힌두교-불교)시대에 기초하고 있다. 건물의 형태와 구조에 종교적 철학⁸⁾을 반영하며 개발되었고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자바 전통 건축은 15세기 이슬람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목구조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시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돌 구조의 고전 건축과 달리 사원과 왕궁의 공공건물등도 목조건축⁹⁾으로 대체되었다(Santosa, A. 2010).

자바 전통 건축은 지붕모양을 기초로 일반적으로 조글로, 리만산, 캄풍 으로 구분한다. 조글로는 리만산과 캄풍에 비해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지붕구조의 기술을 요한다. 조글로는 귀족주택에, 리만산은 왕의 가신주택, 캄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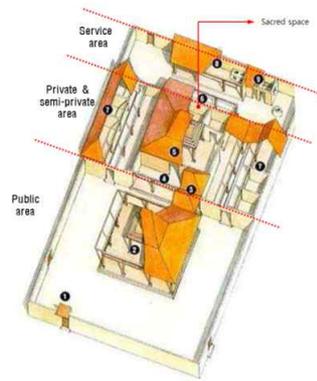
한정하였고, 개축은 기존 건물이 낡거나 소멸되어 중전과 구조·용도·규모가 크게는 달라지지 않게 새로 건물을 세운 경우로 한정하였다. 건물의 구조가 완전히 변경된 경우에는 신축으로 표기하였다. 증축은 기존 건물의 구조에 간단히 지붕을 덧대 건축면적을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하여 표기하였다.

7) 돌 구조의 힌두교와 불교 건물로 힌두교의 프람바난사원과 불교의 보로부두르 사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8) 자바인들은 힌두교 든 불교든 조상 전래의 토착종교라는 기본 틀 안에서 하나의 신앙형태로 수용하여 자바만의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 냈다. 쌀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토착신앙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토착신앙이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달름 공간의 셸통으로 정착되었다(Frick,1997; Waterson,1997)

9) 족자카르타의 술탄 왕궁의 Bangsal Pangrawit 홀은 중국목조건축 전문가를 고용하여 지었을 정도로 중국목구조 시스템을 수용하였다.

은 일반 주택에 주로 사용하였다.



1. Lawang pintu
2. Pendapo
3. Longkang(Tratag)
4. Peringgitan(emper)
5. Dalem
6. Senthong (krobongan)
7. Gandok
8. Gadri
9. Dapur
10. Kamar mandi

Figure 2. A typical layout of Javanese houses

Source: Indonesian Heritage(Vol. 6), p.32

자바 전통 주택은 단층으로 구성되며, 주요 건물과 몇 개의 보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건물로는 펜다포(pendapo)와 프린기탄(peringgitan), 달름(dalem)이 있고, 보조적인 건물로는 좌우의 강독(gandok)과 후면오마¹⁰⁾등이 있다. 각 건물들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대지에 남/북, 동/서, 두 개의 축에 의해 나뉘는데, 부지 내 건물들은 남/북 축을 따라 펜다포-프린기탄-달름-중앙셸통 등 위계적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동/서 축은 프린기탄과 달름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구분된다(Kim & Oh & Ju, 2013).

Table 2.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ront Area and Rear Area at Javanese House

Pendapo	Peringgitan	Dalem	Middle-senthong
front area		rear area	
men		women	
outward oriented		inward oriented	
open, shaded, roofed, without walls		enclosed, protected, roofed, walled	
connected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separately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public and formal		private and intimate	
symbol of transience		symbol of eternity	

Source: Wismantara(2011)

2.2 코타게데 도시구조

코타게데의 도시계획은 마자파히트(Majapahit) 도시 구조와 비슷하다. 도시공간은 궁전(Kraton), 광장(Alun-alun), 모스크(Masjid), 시장(Pasar)의 구성요소가 내벽과 외벽의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궁전은 정치권력의 실제적인 구조이며, 모스크를 중심으로 종교적 활동이 일어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구분되고 광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17세기 초 마타람 왕국이 코르타(Kerta, 1613-1645)와 프레레드(Plered,

10) 오마(omah)는 메인주택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달름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한다. 즉 후면오마는 메인건물(달름) 뒤에 위치한 건물로 우물을 중심으로 독립된 부엌(dapur)과 목욕실(Kamar mandi) 등이 위치한다.

1646-1680)로 옮겨지면서 코타게데는 모스크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궁전과 광장은 주거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바 전쟁기간¹¹⁾에 자바지역의 많은 공예 숙련공들은 안전한 장소인 코타게데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코타게데는 공예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확산되어 은세공 산업과 바틱(batik)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고, 부유한 무역 상인들은 궁전 주변의 귀족주택을 모방한 주택을 건설하였다.

Wondoamiseno(1986)에 따르면 코타게데 자바 전통 주택의 특징은 달름과 펜다포가 롱칸(lonkang)에 의해 분리된 것이라 한다. 여러 주택들이 롱칸에 의해 연결되어 루쿠난(rukunan)을 형성하고 이 골목길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건물의 공간배치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Cahyono(2002)에 의하면 귀족 주택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높은 담장으로 둘러 싸여 루쿠난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사례분석

3.1 사례 A: Erwito Wibowo House

이 주택은 궁전에서 근무하던 가신(Abdi dalem)의 주택으로 1825년경에 지어졌다. 에르위토씨(Mr. Erwito)의 아버지가 1968년에 구입하여 생계를 위해 양계장으로 사용하다, 1998년 에르위토씨가 결혼하여 분가하면서 이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주택은 거주 뿐 아니라 에르위토씨의 사업장인 전통문화공연장으로 사용 중이며,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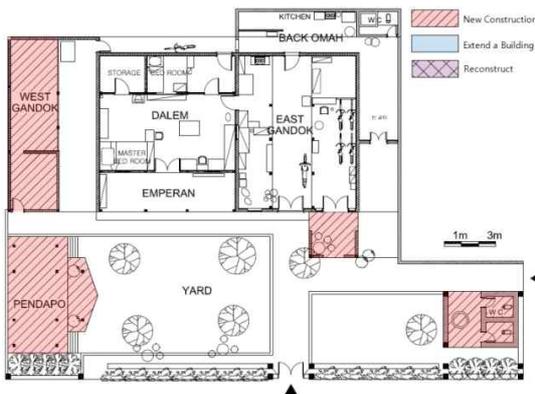


Figure 3. Case A: Erwito Wibowo House

처음 주택을 지었을 당시에는 펜다포가 존재하였으나 에르위토씨가 이집으로 이사오기 전에 펜다포는 이미 파

11) 1825년에 족자카르타의 왕자 디포네고로(Dipo Negoro)의 주도에 의해 식민 정부(네덜란드)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5년간 지속되면서 양측에 막대한 사상자(사망자만 20만 명 정도로 추산됨)를 낸 이 전쟁을 흔히 '자와 전쟁'(1825~1830년)이라고 부른다. 1821년의 대홍작과, 1822년 족자카르타 근처 메라피(Merapi)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민심은 더욱 흥흥해져 디포네고로 왕자는 패배하고 유배를 가게 된다.

괴되었으며, 남서쪽에 무대의 단만 남아 있었다. 현재 이 무대가 전통적 펜다포가 담당하였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공공사업의 지원으로 서쪽 강독¹²⁾과 마당의 화장실¹³⁾을 새로 건설하였고, 띠장¹⁴⁾과 대문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 무대를 새로이 건축했다.

주택의 출입은 남쪽 대문과 마당의 동쪽 측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대에서 공연이 있을 때 관객이 앉을 수 있도록 남측 낮은 울타리를 따라 단을 설치하였다.

이 주택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이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동쪽 강독과 달름, 후면오마는 가족들의 사적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쪽 강독과 무대(펜다포), 마당, 엠퍼 등은 공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손님접대 공간인 엠퍼는 공연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사적인 공간으로의 출입은 동쪽 강독을 통해 출입한다. 이 문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출입 시만 사용하고, 가족들은 주로 강독 전면에 끈중(Kuncung)¹⁵⁾을 설치해 이곳으로 출입한다. 끈중 앞에는 의자를 놓아 가족들의 휴식 및 손님접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독은 달름과 강독사이 통로를 중심으로 단차이가 나며 좌우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나 파티션 구획 없이 공간을 사용한다. 이 주택도 파티션 구획 없이 바닥의 레벨차이로 공간 사용을 구분¹⁶⁾하고 신을 신고 출입한다. 이곳은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아이들의 보육활동, 부인의 요리활동¹⁷⁾이 일어나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달름은 가족들의 생활공간으로 거실, 식당, 침실, 공부방, 기도 등 다목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입은 동쪽 강독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을 벗고 출입한다. 엠퍼와 연결된 문과 창은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내부에는 키 큰

12) 원래 서쪽 강독은 공터였으나 이 터에 새로이 건물을 지어 현재는 크론콩(keroncong,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공연시 사용하는 의상 및 악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파티션을 만들었고 창문도 폐쇄하여 가족 및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13) 이 화장실은 가족용이라기보다는 공연을 위해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한 공용화장실로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 놓는다.

14) 낮은 담으로 객석이 되기도 하고 화분 등을 놓기도 한다.

15) 끈중(Kuncung)은 인간의 머리의 정면(헤어)을 의미한다. 최고의 장소에서 왕관과 같이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여, 왕궁의 펜다포 정면에 설치하는 주 현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자바 전통가옥에서는 펜다포 전면에 설치하여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신문을 읽는 역할을 한다.

16)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고로 사용되며, 아이들의 옷과 신발을 수납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키 큰 수납가구를 이용 공간을 영역을 구분하여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다.

17) 부인이 주택내에서 작은 요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과자를 주문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동쪽 강독의 한 부분이 주문판매를 위한 주방이며, 작업장이다. 주문이 많을 경우 이웃주민(여성)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가구를 이용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 침대를 배치하여, 부부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달름 중앙은 낮은 테이블이 배치되어 가족의 식사공간 및 휴식과 오락공간으로 사용하고, 손님이 오셨을 경우 돛자리를 깔아 이곳에서 취침한다. 가운데 셀통은 현재 아이들의 침실로 사용하고¹⁸⁾, 우측 셀통은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한다. 가운데 셀통 전면에 키 큰 장식장을 배치하여 원래 달름으로부터 바로 들어오는 출입을 차단하였다. 좌측 셀통은 집안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평소에 문을 잠가 놓는다. 기도시간에는 좌측 셀통 앞에 매트를 깔고 기도를 드린다.

후면 오마는 2006년 지진으로 무너져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동쪽 강독을 통해 출입하며 부엌, 세탁실,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고, 주로 부인이 빨래, 요리 등 가사작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3.2 사례 B: Rini Kusuma House

이 주택은 리니부인(Mrs. Rini)의 외가 소유주택으로 19세기 초 리니부인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구매한 후 외할아버에게 상속되었다. 은세공사업을 하던 외할아버지들이어 외삼촌이 거주하다 2002년 이후 빈집으로 비워두었다. 이후 리니부인의 어머니에게 상속되었고, 리니부인이 결혼한 2007년부터 친정엄마와 미혼인 친정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이집에는 리니부인의 두 아이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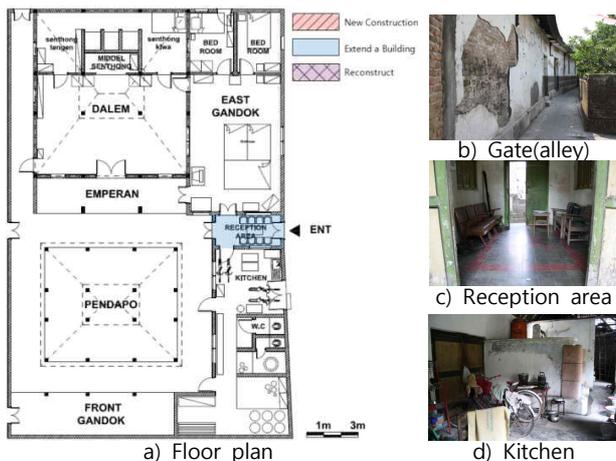


Figure 4. Case B: Rini Kusuma House

부엌과 목욕실이 동쪽 강독 아래에 위치하고, 남쪽 펜다포 아래 전면 강독도 위치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골목이 위치한 대지여건상 동쪽과 남쪽에 보조건물을 추가¹⁹⁾한 것으로 보여진다.

18) 결혼식 후 가운데 셀통을 부부침실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아이가 생기면서 자녀침실로 변화한 것이다.

19) 대지여건에 따라 좌측 강독의 유무와 강독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며, 후면오마의 위치도 좌우의 강독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주건물인 펜다포와 달름의 위계는 유지하면서 대지여건에 따라 보조건물이 추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주택의 물리적인 큰 변화는 없으나, 1950년에 외관을 수리하면서 동쪽 강독 내부도 개조하였다. 내부의 기둥을 없애고 통로의 바닥을 높이고 후면에 방을 만들어 현대적인 넓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주택의 출입은 롱강(longkang)²⁰⁾을 가로지르는 문을 이용한다. 전통적으로 롱강의 좌우측 문은 세레모니가 있을 때 사용하지만, 현재 서쪽문은 폐쇄하고 동쪽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한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손님접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쪽 보조건물은 중정 방향으로 벽이 개방되어 과거 은세공 작업장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펜다포와 달름은 가족의 의례적 행사²¹⁾에 이용되었으나 현재 펜다포, 달름(셀통 포함)은 사용하지 않는 채 비어있다. 펜다포와 달름은 조형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매우 낡아 수리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조한 동쪽 강독을 가족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a) ceremonial meal's offering b) A place of hospitality & celebration of male guests

Figure 5. A Wedding Ceremony held in Case B
Source: Mrs. Rini (a owner of case B)

동쪽 강독은 가족의 침실, 거실, 식당, 공부방, 기도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북쪽에 두 개의 방은 친정엄마와 오빠의 개별 침실로 사용되고, 이 두 방을 제외하고 영역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매트리스를 깔아 잠자리로 사용하고, 매트를 깔아 아이들의 놀이, 공부, 가족들의 TV시청 및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 기도 시에는 달름 측면 근처에서 매트를 깔고 기도를 드린다. 출입은 롱강을 통해 신을 벗고 출입한다.

이 주택에는 우물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사노동공간 및 위생공간인 부엌과 화장실도 이 보조건물에 위치한다. 원래 주출입구로 사용하던 골목으로 난 출입문은 현재는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이 공간에 자전거, 재봉틀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간에 가스렌지와 그릇 보관대, 테이블을 배치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물가에서는 주로 설거지, 세탁이 행해지고 세탁된 의류는 펜다포에서 건조시킨다. 우물 옆 창고는 과거 은세

러나 전면의 보조건물은 일상생활을 위한 보조건물이 아닌 공적인 일이 있을 때 보조하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0) 펜다포와 달름 사이의 분리된 골목이다.

21) 리니부인의 결혼식에 사용되었고, 외삼촌의 장례식에도 사용되었다. 결혼식때 달름은 신랑과 신부가 축하를 받는 장소이며, 의례용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였다. 결혼식은 엠퍼(프린기탄)에서 진행하였다. 강독은 여성 친척들의 대기공간 및 식사공간으로 사용되었고, 남쪽의 보조 공간과 펜다포는 남성가족의 대기공간 및 식사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장례식때에는 달름에 서쪽을 향해 관을 보관하였고 펜다포에서 영결예배를 드렸다.

공 작업시 사용하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

3.3 사례 C: Rina House

이 주택은 약 200여년 정도 된 것으로 현재 소유자인 리나(Rina, 46세)씨의 증조부가 19세기에 구입한 주택이다. 증조부는 고모할머니에게 이 집을 상속하였고, 고모할머니는 무하마디아(Muhammadiyah)의 지도자 아마드(Ahmad)와 결혼하여 이집에서 살았다. 리나씨가 태어났을 때, 고모할머니는 동쪽 강독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리나씨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로 이사를 갔다.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집은 비어있었으나 1995년 리나씨의 아버지가 이 집을 구매하여 다시 이사 오게 되었다. 리나씨는 직장생활로 자카르타에 5-6년 정도 살다 2013년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현재 이집에는 부모님과 여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으나 여동생들은 직장생활과 잦은 여행으로 거의 리나씨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

증조부가 주택을 구매했을 당시에 펜다포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파괴되어 빈 마당만 남아 있다.

1995년 마당의 남동쪽에 별채를 신축하였고 동쪽 강독을 수리하였다. 주택의 접근은 룡강의 서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대문이나 담장 없이 나무와 화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해 주고 있다. 이 주택의 공적인 공간은 마당과 엠퍼로 한정되고 별채, 동쪽 강독, 후면오마는 사적공간으로 사용된다. 엠퍼에는 입식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지나가는 이웃과 손님 접대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룡강과 강독사이에 시멘트로 만든 단이 있어 이웃들은 이 단에 걸터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장소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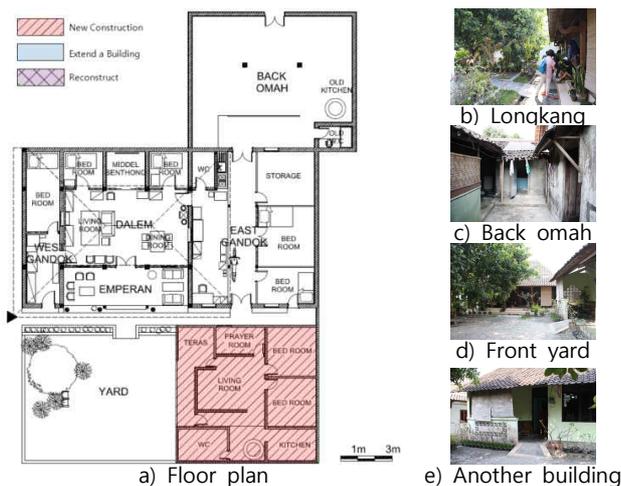


Figure 6. Case C: Rina House

달름은 거실과 식당공간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측은 식탁과 냉장고를 배치하여 식사공간으로 좌측은 TV를 향해 의자를 배치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다. 가운데 셀통은 아무런 가구배치 없이 비워두어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좌/우의 셀통에는 침대를 배치하여 우측은 아버지의 낮잠을 자는 휴식공간으로 좌측은 여동

생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동쪽 강독을 통해 출입한다.

서쪽 강독은 리나씨의 개인공간으로 합판으로 칸막이 벽을 세워 침실을 분화하였고, 동쪽 강독은 부엌, 화장실, 서재, 통로, 침실 및 게스트 룸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강독 통로는 신을 신고 다니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달름 측면과 연결된 후면에는 현대식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었고, 통로에서 신을 벗고 출입한다.

후면오마에는 우물이 있어 재래식 화장실과 목욕실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물 옆에 세탁기를 놓아 세탁공간과 의류 건조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북쪽 골목길과 연결된 문도 있으나 현재는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별채에는 과거 이모와 이모부가 살았으나, 현재는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살고 있다. 별채는 신축한 조적조 건물로 그 안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 본채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이 가능하다. 즉 아버지와 세대 간 분리되어 마당만 공유하여 생활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이 주택은 서양식 입식 가구를 사용하고, 화장실과 부엌도 현대식 설비로 개조되어 위생적이며, 가장 현대화된 생활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의 거주 경험²²⁾과 오랜 도시생활로 현대적 생활방식과 거주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4 사례 D: Joko Nugroho House

이 주택은 가신(Abdi dalem)의 주택으로 대략 1830년에 지어졌다. 1926년 조코(Joko)씨의 조부가 구매한 집으로 아버지에 이어 조코씨에게 상속되었다. 조코씨는 원래 방송일을 하였으나 현재 이 주택을 이용 관광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집에는 조코씨 부부와 부모님, 두 딸과 고모님이 함께 살고 있다.



Figure 7. Case D: Joko Nugroho House

22) 여동생은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를 디자인 해준 삼촌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리나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래 근무하여 외국출장이 잦았다.

공간구성방식은 전통자바주택의 위계적 공간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다. 2011년에 지진으로 붕괴된 펜다포와 펜다포 옆 보조건물을 재건하였다.

이 주택은 9개의 집이 주택 중앙을 지나는 골목으로 연결되는 매우 독특한 도시구조를 보이는 알룽-알룽(Alun-Alun)²³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 접근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한 두 개의 마을 입구를 통해 진입한다. 골목길(Rukunan)은 개인주택에 속한 공간이면서도 이웃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보통 개별 주택의 진입은 펜다포의 남쪽이나 측면에서 이루어지나 이 주택은 9개의 주택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골목을 통해 달름과 펜다포로 진입한다. 즉 알룽-알룽에 위치한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조코씨의 주택도 골목을 경계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Figure 8. The Location of Case D in the Village Alun-alun
Source: Gregorius(2014)

일반적으로 사면이 개방되는 펜다포에 비하여 이 집의 펜다포는 낮은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간성을 강화하였으며 이곳에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공적인 손님접대와 지역의 공동체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Fig. 9). 이때 행사 및 식사준비는 남동쪽에 위치한 보조건물을 이용하였다. 이 보조건물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펜다포의 공식적인 모임을 보조하는 장소로 현대적 설비시설을 갖춘 부엌과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펜다포 남서쪽에 있는 우물은 원래 초대받은 손님들이 펜다포에 들어가기 전 얼굴 및 손과 발을 씻는 의례용이었으나, 펜다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Figure 9. A formal meeting held at Pandapo in 2011
Source: Mr. Joko Nugroho (a owner of case D)

23) 알룽-알룽은 광장이라는 뜻으로 원래 이 곳은 왕궁 앞의 광장이었다. 총 9개의 주택이 연립 주택처럼 동쪽과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쪽 게이트는 주요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동쪽게이트는 다른 주택들과 경계를 이룬다. 펜다포와 달름 사이의 통강은 9개 주택이 하나로 연결된 골목길(Rukunan)을 형성하여 교류를 위한 경로로 사용한다.

골목에 접하는 엠퍼는 반 공적공간으로 평상을 설치하여 가족들과 이웃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한다. 2013년에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엠퍼에서 와양공연을 하였지만 현재는 특별한 손님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곤 달름과 연결된 문은 개방하지 않는다.

달름은 가족들의 일상생활공간으로 거실, 식당, 공부방 등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달름의 출입은 엠퍼와 강독을 통해 가능하나 평상시 가족들의 출입은 동쪽강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체 공간은 가구를 이용하여, 사용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강독과 연결된 오른쪽으로 식탁을 배치하고, 중앙부분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손님접대장소로 사용하며, 이때 손님은 엠퍼와 연결된 문을 통해 출입한다. 달름 좌측으로 책상과 컴퓨터를 배치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가운데 셀통은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측 셀통은 어머니와 고모님의 침실로 사용하고 좌측 셀통은 잡다한 물건이 보관된 창고로 사용된다. 다른 주택과 다르게 달름에서도 신을 신고 생활한다.

강독은 가족들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부부침실은 합판으로 벽을 세워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아이 침실과 게스트 침실은 파티션을 이용 영역만 구분해 주고 있다. 골목과 연결된 강독의 출입구 바로 앞 게스트 침실²⁴은 현재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강독은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신을 신고 생활하며, 부부침실에는 바닥에 매트 깔아 신을 벗고 생활한다. 서쪽강독은 달름의 지붕을 연장하여 생긴 좁은 처마 밑 공간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후면의 부엌과도 연결되어 있다.

강독 후면에 우물이 있고, 화장실과 목욕실, 부엌이 모여 있다. 우물과 연결된 달름 후면 공간은 싱크대와 개수대를 설치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물 앞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탁공간으로 사용하고 우물과 화장실, 목욕실, 부엌은 각각 벽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3.5 사례 E: Lely House

이집은 약 200여년 정도 된 집으로 이슬람지도자였던 먼 친척으로부터 렐리(Lely)씨의 할머니가 상속받았다. 이 주택은 일본식 근대학교가 들어오기 전인 1942년까지 이슬람 기숙학교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04년까지 유치원과 중학교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말에만(주 1회)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렐리씨의 가족들은 1976년부터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이집에는 렐리씨와 어머니가 살고 있으며, 후면의 별채에는 사촌과 그녀의 아들이, 아래채에는 오빠가족(오빠+올케+조카2)이 살고 있다. 렐리씨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

24) 원래 부모님의 침실은 오른쪽 셀통을 사용하였으나 아버님의 거동이 불편하여 동쪽강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달름과 셀통은 약 50cm(2단)정도의 차이가 있어 휠체어의 이동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아버님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동한 것이다. 원래 이 곳은 장모님의 방문시 게스트 침실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치고 있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전통옷을 판매하고 있다.

펜다포와 달름은 전통방식이 남아 있으나 좌우 강독과 후면오마 등은 공간개조가 이루어졌다. 주택의 물리적인 변화는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0년대 좌우 강독과 후면 오마를 수리하였고, 2006년 지진이후 펜다포를 재건하였고 강독의 바닥 마감재를 변경하였다.

이 주택은 동쪽과 서쪽에 2개의 출입문이 있다. 동쪽의 출입구는 롱강(longkang) 양측에 예전부터 존재하던 문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쪽 출입문은 공간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새로 만든 듯하다²⁵⁾. 특히 이 두 개의 출입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있어 이웃들이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다²⁶⁾.

펜다포는 지진이후 허물어진 것을 재건하였는데, 현재 이웃들의 공동체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주말에는 펠리씨 올케가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이웃 사람들의 모임장소로도 사용된다. 펜다포 우측의 보조건물은 서제로 작가였던 아버지의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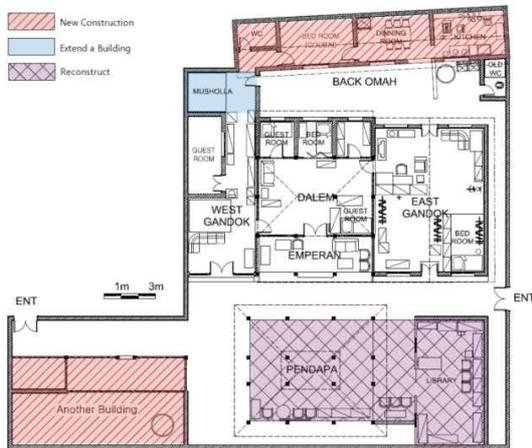


Figure 10. Case E: Lely House

달름으로의 출입은 엠퍼와 좌우의 강독을 통해 이루어지며, 달름 내부는 특별한 용도는 없으며 한쪽공간을 키 큰 가구를 파티션으로 이용하여 게스트 침실로 구성하였다. 중앙 셀통은 문을 달아 펠리씨의 침실로 사용하고, 왼쪽 셀통은 게스트 침실, 오른쪽 셀통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식구들이 많지 않아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달름은 특별한 용도가 없다.

동쪽 강독은 어머니의 생활공간으로 가구배치와 커튼을 이용하여 의류 판매공간과 침실, 일상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롱강(longkang)과 연결된 전면부는 의류 판매공간으로 이용된다. 키 큰 수납장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사적인 공간과 휴식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뒷마당과 연결된 후면부는 달름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작업실

25) 서쪽 출입문은 막다른 골목 끝에 위치한 북쪽 진입문으로 기존 주택의 빈 터에 아래채 및 이웃한 건물이 들어서면서 출입문의 위치를 변경된 듯하다.

26) 본 연구자도 이 주택을 조사하기 전 안내자를 따라 지름길로 2-3번 이용하였다.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된다. 서쪽 강독은 펠리씨의 생활공간으로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된다. 전면은 소파가 배치되어 가까운 이웃 등 손님접대공간으로 사용되고, 소파 뒤 낮은 평상은 펠리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으로 사용된다. 벽으로 가리워진 중앙의 방은 원래 아버지의 서재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창고 및 게스트 룸으로 사용한다. 후면에는 낮은 평상을 깔아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에 좌/우 강독 모두 바닥마감재를 타일로 교체(수선)하였고 바닥의 단차이²⁷⁾도 없애, 강독 전면 입구에서 신을 벗고 출입한다.

뒷마당에 우물이 있으며 이 우물 옆에 화장실 및 목욕실이 있다. 뒷마당은 주로 빨래 건조에 이용하며, 그 뒤편의 별채에 현대식 설비를 갖춘 부엌과 화장실을 만들었다. 현대식 화장실은 서쪽 강독과 연결되어 펠리씨와 사촌가족이 주로 사용하고 뒷마당에 위치한 화장실은 어머니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3.6 사례 F: Achmad Charis Zubair House

이집은 약 160여 년전 1854년에 하리스(Charis)씨의 조부가 지은 집으로 조부는 부유한 바틱 상인이었다. 하리스씨는 저명한 철학교수로 현재 이집에는 부인과 4명의 자녀를 포함 7명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고용인들과 함께 살았으나 현재는 식구들만 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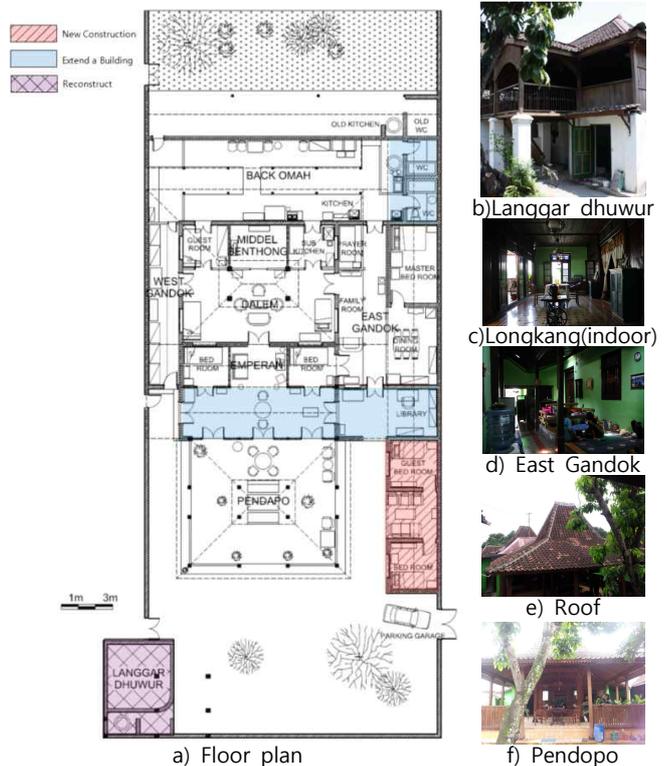


Figure 11. Case F: Achmad Charis Zubair House

27) 강독의 통로는 롱강과 후면오마를 연결하기 때문에 바닥은 마당과 같은 레벨이나 이 통로 레벨이 상승됨으로써 통로와 좌우로 분리된 영역은 하나의 공간으로 일체화되었다.

이 주택은 다른 주택들과 다르게 랑가르(Langgar dhuwur)²⁸⁾가 존재한다. 1994년에 펜다포와 달름을 연결하는 프린기탄과 동쪽 강독 앞 별채를 증축했다. 2012년에 국가예산을 받아 랑가르의 바닥과 지붕, 벽을 수리하였다.

이 주택은 서쪽의 골목을 향해 총 3개의 문이 있다. 남서쪽의 첫 번째 문을 대문으로 사용하며, 롱강 측면과 후면오마에 위치한 문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²⁹⁾. 남서쪽 대문 옆에는 2층 구조의 랑가르가 위치한다. 1층에는 창고와 우물 및 화장실이 있고, 2층이 사원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당을 향해 오픈된 펜다포는 2010년 영화촬영을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나무 난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앙³⁰⁾에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공적인 손님접대 공간³¹⁾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코란을 읽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주택의 가장 특징은 펜다포와 달렘이 프린기탄으로 연결된 것인데, 원래 롱강이었으나 전면에는 목조패널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만들고 바닥을 올려 내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여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반 사적공간으로 사용한다.

엠펠 좌우에는 나무패널벽으로 분리된 사적인 개인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부모의 침실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아들과 딸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달름으로 출입하는 중앙 부분은 소파와 TV를 배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달름은 가족과 친척들의 거실,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중심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었고, 양쪽에 침대가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침대는 아프신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으며 왼쪽 침대는 게스트가 사용한다. 손님들은 주로 펜다포에서 접대하기 때문에 달름은 가족 및 친척들이 모임장소로 이용한다. 가운데 셀통은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이 주택이 받은 수상 물품³²⁾을 보관하고 있다. 우측 셀통은 후면 가드리와 연결하여 냉장고 및 테이블을 배치, 보조부엌으로 사용하고 좌측 셀통은 게스트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동쪽 강독은 가족실, 기도실, 식당 및 서재, 부부침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통로를 중심으로 우측 전면은 식당으로 후면은 부부침실로 사용한다. 부부침실은 간막이 벽을 세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당³³⁾은 오픈되어 있다. 달름과 연결된 좌측전면에도 TV와 소파를 배치하여 가족실로 사용하고 후면은 기도실로 파티션을 이용하여 시선만 차단하고 있다. 가족실은 가족들의 오락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웃주민(여성)이 놀러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서쪽 강독은 고용인들의 거주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창고로 이용된다.

달름 후면의 가드리는 현재 우측 셀통과 연결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부엌으로 사용하던 후면오마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으며 후면오마로의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 작은 마당을 사이로 가드리와 마주보고 있는 부속 건물은 과거 고용인들의 침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특별한 기능 없이 빨래 건조 장소로 사용한다. 동쪽 강독 후면에 우물이 있어 화장실(목욕실)로 사용한다.

별채는 동쪽 강독 정면에 게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신축하였다. 과거 임대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결혼을 앞둔 딸의 침실과 게스트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외지에 나가 있는 딸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별채 앞 마당에 간이주차장을 만들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자동차는 동쪽 문³⁴⁾으로 진입한다.

4. 코타게데 자바 전통 주택의 변화특성

각 주택별로 분석된 공간 사용의 변화 특성을 주요 공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펜다포

펜다포는 주택 최전면에 위치하고, 외부에서도 보여지는 그 주택의 품격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펜다포는 벽이 없이 개방된 정자형 건물로 지역 주민과의 사교 공간, 연회 시 손님접대공간 그리고 연극공연으로도 활용되는 등 남성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공간(Santosa, 1997; Kim & Oh & Ju, 2013)이다. 펜다포를 건축하는 것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³⁵⁾, 부호들은 자

28) 랑가르는 무슬림(mushala)의 소규모 마을사원으로 가족들과 근처 이웃들이 매일 기도를 드리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코타게데 전통주택에서는 다락에 위치하여 주요건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현재 코타게데에 2개의 랑가르가 남아 있다. 높은 랑가르는 벽기둥에 의해 지지하고 목조로 건축했다. 신의 공간이기 때문에 높은 다락구조이며 신성한 서쪽, 주택의 전면(남서쪽)에 위치한다.

29) 서쪽 강독 앞의 출입문은 예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서쪽강독에서 거주하고 있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용하던 출입문이었다. 후면오마의 출입문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였다. 시장을 가거나 이웃집을 방문할 때 이용하였다.

30) 파미당안(Pamidangan)이라 부르며 4개의 주 기둥에 의해 한정된 중심공간을 의미한다.

31) 과거에는 남성위주(남편)의 손님접대장소였다면 현재는 남녀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32) 이 주택은 지역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상을 수여받았다. 2009년 세계문화유산건물로 지정(주지사), UNESCO 후보, 2012년 국가예산기금에 의한 재건상 등등

33) 가족들의 식사는 강독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꼭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부인의 경우 TV앞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고 한다.

34) 코타게데 지역은 좁은 골목길로 보통 주택에서 주차장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이 주택의 동쪽은 빈 공터로 이 공터를 통해 자동차가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다.

35) 조글로 지붕으로 이루어진 펜다포를 모든 주택에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조글로 지붕은 자바 건축 중 가장 발달된 지붕 모양으로 매우 정교하며 왕실이나 귀족 주택 등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다(Kim & Oh & Ju,

신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를 펜다포에서 표출하고자 하였다(Gregorius, 2014). 자바 귀족주택의 펜다포에서는 주로 전통공연과 행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코타게데에서는 종교모임³⁶⁾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펜다포의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이 파괴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대지진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건물들이 많이 붕괴되었으며, 관리부재와 노후화로 인하여 펜다포가 급속히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일부는 돈을 받고 펜다포를 판매(Cahyono, 2002)³⁷⁾한 경우도 있다.

Table 3. Use and Transformation of Pendapo

The pendapo no longer exists. (open space & courtyard)	The pendapo is transformed into performance space (stage)	The pendapo still exists and its space is used for public activities	Used for drying clothes with empty space
			
Case C	Case A	Case D, E, F	Case B

사례 C의 경우, 펜다포가 대지진 시 파괴되어 마당에 흔적만 남아 있다. 거주자는 펜다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마당을 정원처럼 가꾸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례 A는 이미 파괴된 펜다포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무대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과거 펜다포에서 했던 외양공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펜다포의 위치를 조정하여 남/북축의 위계적 공간구성방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펜다포의 사회적 의미가 축소되어, 사례 B처럼 아이들의 놀이터나 빨래 건조공간 등 일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E, F의 경우는 펜다포의 기능과 사용빈도는 약화되었지만 그 의미와 활동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개방된 구조는 유지하면서 나무 난간을 설치하여 공간을 한정하고 있다. 사례 F는 공동체 모임이나 종교모임 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손님접대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례 D와 E의 경우는 지역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의 기능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펜다포와 같은 공적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³⁸⁾. 또한 펜다포는 일반

적으로 조글로 양식으로 그 보수비용이 매우 높아, 펜다포의 축소된 사회적 의미에 비하여 더 이상 주택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해지는 현상이다.

4.2 프린기탄/엠펜

귀족주택에서는 외양공연을 위한 프린기탄³⁹⁾이 존재한다. 그러나 코타게데 주택들에서는 엠펜⁴⁰⁾라 부르는 테라스 형태로 나타난다. 엠펜은 달룸에 달린 베란다 공간으로, 펜다포를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반-공적공간으로 사용하는 달룸 전면의 현관(porch)이라 할 수 있다.

Table 4. Use and Transformation of Pringgitan

Used not for porch but for seating area for tourists	Not used (empty space)	Used as the bedrooms and corridor (interiorization of longkang)	Reception room for quest (furnished with seatings)
			
Case A	Case B	Case F	Case C, D, E

코타게데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 변형된 엠펜은 펜다포와 달룸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이자 반-공적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구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간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사례 A)와 완전한 실내의 사적공간으로 변형된 경우(사례 F)가 나타난다. 사례 A는 특수한 경우로 마당 공연이 활성화되므로, 관광객으로부터 생활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엠펜과 달룸사이 출입을 차단하고, 관광객과 이웃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례 F는 펜다포와 달룸사이의 롱칸을 내부공간으로 변경하여, 달룸으로 가는 복도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침실을 배치하였다. 이 집은 펜다포가 공적공간으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변형된 롱칸은 손님접대를 주로 하는 펜다포에 비하여 가족들이 모이는 반-사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사례 C, D, E)는 반-공적공간으로 손님접대장소 및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식가구를 배치하여 공간을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엠펜은 반-공적공간의 성격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펜다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엠펜에서 펜다포 기능을 일부 수용하여 가까운 이웃이나 손님 접대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4.3 달룸

달룸은 펜다포 뒤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가

대체하고 있어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를 제외하고, 가끔 사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39) 인형의 자리, "ringgit" 링깃이란 단어로부터 유래하였다.

40) 엠펜은 달룸의 전후, 좌우 모두 형성할 수 있다. 좌우 엠펜은 좌우 강독에 포함되며, 후면 엠펜은 가드리라 부른다.

2013).

36) 영결예배, 기도모임(회중기도), 코란 암송, 성전독경(이슬람 성전의 가르침), 종교적 발언을 위한 모임 등 종교적인 모임을 의미한다. 또한 라마단 금식기간동안 저녁기도를 위한 기도모임 장소로 사용한다(Santosa, 2007).

37) 자바건축은 목조가구식으로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여 공간기능이 약화된 펜다포를 가장 먼저 해체하여 판매하였다고 한다. 또한 펜다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또 다른 주거공간으로 변환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38) 전통적인 의미의 펜다포는 손님접대장소 및 가족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외부공간에서

장 먼저 지어지는 건물로서, 외부 방문자는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다 (Kim & Oh & Ju, 2013). 달름은 전면의 조간(jogan)⁴¹⁾과 안 쪽에 위치하는 세 개의 작은 셀통으로 구성된다. 달름은 할례, 결혼식, 장례식 등 다양한 의례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가족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모임장소로 사용하였다. 여성의 공간으로 상징하며 사방 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의 신성한 장소이다.

Table 5. Use and Transformation of Dalem

transformed into a mixed use space for domestic activities Bedroom, living room (TV), dining room.	transformed into family activities & gathering	transformed into a elderly's rest and bedrooms.	Not used (occasionally used as space for big family)
			
Case A	Case C, D	Case E, F	Case B

조간(Jogan)은 달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넓은 공간으로 양 끝에 커다란 다목적 나무침대(amben)가 있고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의자를 배치하여 공적으로 방문하는 손님의 접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셀통 전면으로 양쪽에 장식품등을 진열하는 찬장을 배치하여 가족의 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달름은 전체 주택 중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존경의 의미로 노인의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달름의 의미는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집안의 높은 어른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사례 A, F). 또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운데 셀통 전면에 장식장을 배치하여 격식을 차린 공간으로 현대화된 가구를 이용 가족공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에 대한 위계와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4.4 셀통

달름 뒷부분에는 신성하고 영적인 의미⁴²⁾를 가지는 셀통이라 불리우는 세 개의 방이 있다. 가운데 셀통은 쌀의 여신(Dewi Siri)을 상징하는 장소로 가장 신성시한 공간이며, 달름을 향해 열려있다. 왼쪽 셀통은 전통적으로 곡물을 저장하는 장소이고 오른쪽 셀통은 도구 등을 보관하였다(Scott, 2012). 농업 활동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는 도시 거주민인 코타게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나 자바 전통적인 의식과 믿음으로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41) 메인 문과 셀통 사이의 바닥공간을 조간이라 부른다 (Santosa, 1997). 캄퐁 및 리만산의 경우 주택 내부는 전면부(조간)와 후면부(셀통)로 간단히 구별하지만 조글로는 전면(조간), 중앙(파미당안, 4개의 주기둥), 후면(셀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 셀통은 전통자바주택의 가족사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힌두-불교의 가족사원과 같은 전통이 이슬람자바에서는 3개의 셀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43) 1925년 이슬람 개혁 운동으로 조상숭배에 대한 여러 형태는

사례 C, D에서는 중앙 셀통이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대위 스리를 숭배하는 신성한 방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도실로 변화되었지만 공간의 물리적 조정⁴⁴⁾ 없이 수용하고 있어 공간이 가지는 신성한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앙 셀통을 신을 상징하는 빈 공간을 유지하는 경우(사례 F)도 있다.

Table 6. Use and Transformation of Senthong

inactive space		transformed into pray room	transformed into bedrooms
Not used without meaning	Meaning of worship, Dewi Sri		
			
Case B	Case F	Case C, D	Case A, E

반면에 공간의 신성한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고 사적인 공간으로 변용된 경우(사례 A, E)⁴⁵⁾도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개방된 중앙 셀통에 문을 달거나 파티션이나 가구를 이용하여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바닥레벨을 조정⁴⁶⁾(사례 E)하는 등 공간의 물리적인 조정도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 침실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발이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금지⁴⁷⁾하고 있어 공간사용 시 방향과 축에 대한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의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좌/우의 셀통은 침실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폐쇄적인 구조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이하게 보조부엌으로 사용하는 경우(사례 F)는 우측셀통이 후면 가드리와 동쪽 강독과 연결되어 있어 식사준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서비스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운데 셀통은 신성한 의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좌우의 셀통은 별도의 물리적 조정 없이 공간의 기능과 편리함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5 강독

강독은 가족들의 일상적인 집안일과 휴식 등 일상생활을 수용⁴⁸⁾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복합적 생활공간이다. 개

폐지되어 쌀의 여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loro blony를 소유하던 전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중앙셀통은 상징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Kim & Oh & Ju, 2014).

44) 달름을 향해 오픈하여 커튼으로 장식하고 주택에서 가장 높은 바닥면을 가지고 있다.

45) 특이하게도 이 두 사례 모두 조글로 양식이 아닌 리만산 양식에서 나타났다.

46) 일반적으로 가운데 셀통의 바닥높이는 달름보다 약 20~30cm 높아 가장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이다. 그러나 사례 E의 경우 달름과 같은 바닥레벨로 바닥을 낮췄으며, 후면에 창문을 달아 환기와 채광이 가능케 하였다.

47) 서쪽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쪽을 향해 발을 두지 않으며, 기도를 드릴 경우 이슬람 사원이 있는 서쪽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

인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활동까지 수용하고 있다.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의 접대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잠을 자는 침실로 사용하기도 하며, TV 시청 등 가족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강독은 동쪽 강독과 서쪽 강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쪽 강독은 그 규모나 크기가 동쪽 강독에 비해 작아 대부분 창고로 사용(사례 A, D, E)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 서쪽 강독이 없는 경우(사례 B)도 있으며, 달름의 측면 지붕을 담장까지 연장하고 그 아래 공간을 강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사례 C, D, E)도 있다. 별도의 독립된 지붕구조를 가진 경우(사례 E) 동쪽 강독과 같이 일상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의 물리적 조정⁴⁸⁾과 가구를 이용하여 접대공간, 게스트 룸, 기도실 등으로 사용한다.

Table 7. Use and Transformation of Gandhok

family dwelling space		transformed into commercial space	transformed into service rooms, storage (left Gandhok)
bedroom, living room	service and utility activity (rooms, storage)		
			
Case C, D, F	Case A	Case E	Case A,C,D,F

동쪽 강독은 가까운 이웃과 친교, 가족의 침실, TV시청 및 식사 등 가족들의 일상생활공간으로 가족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공간이다. 조사대상 중 실내공간요소의 물리적 조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공간이다. 주택의 전면과 후면을 연결하는 통로부분의 바닥을 높여 실내에서 신을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정(사례 B, E)하였고, 지붕구조를 변경하여 실내의 기둥을 제거하였고 침실로 사용할 경우 가벽을 세워(사례 B, C, D, E, F) 공간을 분화하기도 하였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현대식 부엌과 화장실을 만들어 편리함을 추구한 경우(사례 D)와 가정활동 뿐 아니라 공공활동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사례 A, E)도 있다. 사례 A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없으나 공연 연습공간과 부인의 부엌공간으로도 사용한다. 사례 E는 가내 의류 판매공간으로 이웃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동쪽강독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외부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의 규모가 충분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공간의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6 후면오마

후면오마는 달름 뒤 건물로 가사 서비스 활동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장소이다. 주택의 주요 물 공급원인 우물이

48) 동쪽 강독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생활공간 및 침실로 사용하였고, 서쪽강독은 남성들의 생활공간 및 침실로 사용하였다(Kim & Oh & Ju, 2014). 파티션 구분 없이 큰 대나무 침대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하였다고 한다.

49) 바닥, 벽, 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주로 뒤뜰(사례 A, C, D, E, F)에 있어, 그 주변으로 부엌과 화장실이 위치한다. 주택의 북쪽 길과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다(사례 B, C, D, E).

현대적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부엌이나 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대적 설비로 개조를 할 수 있음에도 사례 D를 제외하고 기존위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후면부 건물이 크게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빈 공간(사례 C, F)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신인동형론적 사고관⁵⁰⁾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는 결과로 사용방식과 위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가족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코타게테 지역의 전통주택을 대상으로 전통주거공간이 현대생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조사와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코타게테 자바전통주택의 공통적인 특성과 공간사용의 변화특성,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코타게테 전통 자바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대부분 원 소유자의 후손 또는 상속인으로 보통 3대 이상 코타게테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주택들은 모두 남/북측에 따르는 전통적인 공간의 구성과 위계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동/서측의 개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펜다포는 전통적으로 매우 사회적 의미가 크고, 그 주택의 품격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으나,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펜다포의 공적인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활용도와 의미가 약화되어, 소실되거나 노후되어 방치되고 있다. 펜다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주택전면의 우물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타게테의 독특한 지역적 결속력으로 인하여 아직도 종교모임, 유치원, 공연장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도 조사대상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다.

셋째, 달름과 셀통은 자바 전통주택의 공간 중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이다. 달름은 그 공간의 비중과 위계에 비하여 사용 면에서는 강독보다 활발하지 않다. 다른 공간에 비하여 가장 장식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공간에서 행해지던 집안의 의식과 혼례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어, 집안의 윗 어른의 거주공간이나 가족공용공간으로 변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달름 내 주요 공간인 셀통은 신을 상징하여 비어있던 공간에서 이제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변화와 함께 사적인 침실로 사용하거나, 신성한 의미를 유지하여 이슬람 기도실로 사용한다.

50) 우주를 크게 3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주택에 반영하여 주택의 전면부는 머리, 생활영역은 몸, 생활영역을 서비스하는 주택 후면부는 발과 생식기 비유하였다(Kim & Oh & Ju, 2013).

넷째, 전체 공간 중 가장 변용이 많이 일어난 공간이 강독이라 할 수 있다. 강독은 전통적으로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곳에서 가사작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식사도 하고, 저녁에는 이곳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취침을 하는 복합공간이었다. 이러한 주요 기능들은 현재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바닥차를 없애거나, 파티션을 설치하여 개방된 공간에서 사적 침실을 분화하거나, 침실을 증축하여 사적인 공간을 강화하였다. 현대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변용한 공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쪽 강독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에 오면서 식구 수가 줄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고용인들도 없어져, 자연스럽게 그 의미와 사용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후면오마에서 우물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청결 및 가사작업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식구 수의 감소로 인하여 넓은 공간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타게데 전통자바주택은 공간구성 면에서는 전통적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나, 전통주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펜다포(사회적, 남성), 달름(개인적, 여성)의 상징적 의미는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강독의 의미와 비중이 크게 부각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기술의 발전과 개인 생활 중시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강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이 공간의 확장, 실세분화 등의 변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타게데 지역 중 푸르바얀(Purbayan)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이 지역에서도 거주자 인터뷰가 가능하고, 실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되었다. 또한 현지 방문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주택 내에서 행해지는 비밀상적 생활(제사, 명절)들과 통과례를 관찰할 기회가 없었음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주와 내용적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Cahyono, A. (2002). *Strategi Penyesuaian Rumah Tradisional dan Pengaruhnya Terhadap Pola*, Master's Thesis, Universitas Diponegoro Semarang.
2. Frick, H. (1997). *Pola Struktural dan Teknik Bangunan di Indonesia*, Yogyakarta, Kanisius.
3. Gregorius, S. (2014). *Culture of Dwelling and Production of Space in the Post: Disaster Urban Transformation Processes*, Ph.D thesis, Berlin Technical University.
4. Holahan, C. (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5. Jogja Heritage Society. (2007). *Homeowner's Conservation Manual*, Jakarta, UNESCO.
6. Kim, D., Oh, H., & Ju, S. (2013). A Study on the Belief and the Architecture of Traditional Javanese

- Hou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2(6), 199-211.
7. Kim, D., Oh, H., & Ju, S. (2014). The Characteristic of Decoration in Indonesian Traditional House: Focused Javanese Hou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6), 111-121.
8. Law, S., & Chambers, E. (1989). *Housing Culture and Design*,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9. Lee, Y., & Hong, H. (1996). Theoretical Approach about Housing Life Sty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103-117.
10. Santosa, A. (2010). *Architectural Inculturation and transformation: Case study on the three Catholic Churches in Java*,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1. Santosa, R. B. (1997). *Omah: The construction of meanings in javanese domestic settings*, Master's Thesis, Montreal McGill University.
12. Santosa, R. B. (2007). *Kotagede: Life between wall*, Jakarta, Jakarta, Gramedia Pustaka Utama.
13. Scott, R. (2012). *Significant Pavilions: The Traditional Javanese House as a Symbolic Terrain*, Sydne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4. Tjahjono, Gunawan editor. (2003). *Indonesian Heritage -Vol. 6*, Jakarta, Archipelago Press.
15. Waterson, R. (1997). *The Living House: An anthropology of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Thames & Hudson.
16. Wismanara, P. (2011). Spiritual Journey Principles in Javanese House: an Interdisciplinary Reading, *EL-HARAKAH*, 13(2), 61-75.
17. Wondoamiseno. (1986). *Kota Gede between Two Gate*. Yogyakarta, Gajah Mada University Press.

(Received Nov. 5 2015 Revised Dec. 15 2015 Accepted Feb. 22 2016)